

감사, 감사 또 감사

누가복음 17:11-19

어느 덧 11월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하지만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어서 감사의 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감사,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시련을 감사하라

10명의 나병환자,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큰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11-12절).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시련의 때입니다. 성경에서 시련의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회당장 아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의 사람은 38년 된 병을 가지고 신음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매오는 앞을 못 볼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인생에 시련이 없었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 만난다는 것입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환난 중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셋이 아니라 넷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도와주셨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는 거목이 될 수 없습니다. 시련 속에서 자란 나무가 거목이 됩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4)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즈음 시련 가운데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또 깊이 만날 좋은 기회임을 기대하며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2. 응답을 감사하라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환자 모두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13절)” 이들 모두에게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14절)” 사람들이 불 때 예수님 말씀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능력이면 당장 고쳐주실 터인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한 명도 다른 말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다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두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두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할 때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 발아래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 온자가 없느냐(17절)” 고 말씀하십니다. 열 명 모두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열 명 모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사마리아인 한 명 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기도와 순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까지 해야 완성됩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감사를 기다리시고, 감사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감사를 미루지 맙시다.

3. 구원을 감사하라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은 진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질병이 나은 것 뿐 아니라 영혼이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축복과는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은 말로 고치실 수 있지만 구원은 친히 그 구원의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이해 못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죄와 죽음과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대한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진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주어진 시련을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고, 베푸신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감사 또 감사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 감사 또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신은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

1. 시련 가운데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마리아인이 다른 아홉 명과 같은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감사드렸습니까?
3.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 올해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